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찌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예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니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장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 나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1~20]

교회 절기를 따르면 오늘이 대강절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 잘 안 쓰시죠? 가끔은 대림절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 성탄절 이전의 4주를 가리켜서 흔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주일이 4번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연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복음서가 신약에 4권이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혹은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 혹은 제 5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예언이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책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끔 정말 부모 속 썩이는 아이가 있죠? 험한 말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이런 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 그런 수가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은 절대 아님데?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혹시 그런 아들이 있으면 갖다 버려요? 결국은 부모가 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딸이 시집가겠다고 했는데 부모가 아무리 봐도 허락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안 된다고 하니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열흘을 굶었더니 결국 허락하더라고요. 며칠 전 신문에 나왔던 간증입니다. 어떡해요? 죽는다는데?

왜 자식을 부모가 못 이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낳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낳은 죄가 참 무섭습니다. 평생 따라 다니는 죄예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혹시 어떤 가정에서 있음직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 이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이 금방 보여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나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심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 싫을 정도로 흔히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 진짜 골 때리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정말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 않고, 순종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도 끝끝내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요.”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두렵다, 무섭더라. 이런 분은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정말 찬찬히 읽어 보시면 참 하나님이 불쌍해요 라는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 쪽이 맞아요. 이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나요?

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오늘 옴기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희한하게 같은 내용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옴기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무슨 득이 될 일, 아니면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될 일 할 수 있겠느냐? 아무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만 따지면 털끝만큼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있어봤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능력만으로 비교한다면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이, 기지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능력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울고 똥 싸는 것 밖에 없지만 이 아이가 엄마를 들었다 놔다 해요. 왜 그렇죠? 모자 관계잖아요. 능력으로 치면 아무런 힘도 없는 아이가 엄마를 웃기고 울릴 수 있는 것은 관계 때문이지요. 무슨 관계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털끝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수한 관계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뜻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자녀로 만드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웃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하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기도 하세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짐승이나 자연 만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과 그런 특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큰 영향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골치 아픈, 정말 골 때리는 백성이었는지 이사야를 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 갔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 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농사지를 때 비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 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히 비를 맞추어 주세요. 그러니 논에 물 대려고 애 쓸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필요한대로 주세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로부터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때 유명했던 강대국들은 전부 이 땅 주변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더라도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을 다 막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

개를 돌려 버려요. 그러면 주변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집어 삼켜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앗수르, 남쪽에 있었던 애굽, 나중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쳐다보면서 앗수르에 붙어야 되나? 애굽에 붙어야 되나? 바벨론에 붙어야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제쳐두고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봤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창하게 품 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훗날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길에 ‘사고 목격하신 분, 후사하겠습니다, 연락바람.’ 이런 것 더러 보이시죠? 그 플래카드를 걸어둔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고는 당했어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다 덮여 써야 될 판이에요. 그럴 때 증인을 구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증인이 못되니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 증인이 좀 되어다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셨으면 내 백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어떻게 해서 내 백성은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보다 못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 오게 하시고 만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무엇이 되었는가? ‘**솔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기대와는 너무나 동 떨어진 그런 백성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 아담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그 위의 조상들이 다 그랬단 말입니다. 홍수 때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 때 또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 버리고 이런 역사를 반복해 갑니다.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더 못해요. 짐승들은 매 맞으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점점 더 멀리가고 더욱 더 패역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꾀다 못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징계를 시작하면, 8절이 남은 모습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밭은 전부 야트막하잖아요? 그런데 한 쪽 귀퉁이에 원두막처럼 볼록 솟아 있는 그러니까 넓은 평지에 달랑 하나 남은 것처럼 남기고는 다 없애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해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했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고까지 말씀 하셨을까요? 생각을 깊이깊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랬을까?’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0절을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이다**’

이사야 시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진지가 오래 됐어요. 아주아주 옛날에 사라진 소돔이

어디 있다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러실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일까요? 누구고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인데 왜 이러실까요? 은근슬쩍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멸망 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시는 셈이죠, 사실은 자기 백성이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자기 백성을 남의 백성처럼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보다 못한 백성들아” 또는 “저 멸망 받을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걸까요?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제사를 드렸고 13절 중간쯤을 보세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절기를 다 잘 지켰어요. 절기 때 마다 제사를 드렸고 절기 때 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잘 드렸단 말입니다. 15절 중간쯤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게 문제지 이스라엘은 기도를 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주인도 못 알아보는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말씀하시느냐는 얘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그 표시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제물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제물을 드리는 동시에 악을 행했다고 그러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긴다고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 제사 다 싫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 다시는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비유가 비슷할는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 하는 것과 비슷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부부가 싸울 때 이래요. “내가 너한테 안 해 준 게 뭐고?” 부인이 말합니다. “해 준 것은 뭔데?” 누구 말이 맞나요? 안 싸워보셔서 잘 모르죠? 전 정답 알아요. 둘 다 맞아요. “내가 월급 받아 가지고 딴 데 쓰더냐? 통째로 다 안 주더냐?” 그러니까 할 것 다 했죠.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밥만 먹고 사냐? 돈만 갖다 주면 다야?”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 정을 주어야지, 돈만 갖다 주면 다 됩니까? 서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것 다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싫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어디 가고 없고 형식만 갖추어 가지고 제물만 열심히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먹기 싫은데 계속 먹으라고 갖다들이대는 거예요. 먹기 싫은 음식 자꾸 갖다 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명절 되면 꼴도 보기 싫은 자식들이 떼거리로 몰려 와서 “아이고, 아버님. 오래 사세요. 어찌세요.” 하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어 죽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된 꼴입니다. 먹기 싫은 음식 꾸역꾸역 먹여 가지고 배는 터지겠고 보기 싫은 자식들이 집에 와서 온통 난리예요. 하는 소리들은 다 듣기 싫어요. 하나님은 왜 이 모양이신가요? 정답은 못난 자식을 많이 둔 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낡은 죄 있잖아요? 못난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이 낳아서 이렇게 힘드시는지 몰라요. 누구 죄죠? 하나님이 죄인이랴구요? 이런 일을 처음에 저지르신 분이 누군데요? 뭐 하러 이런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대면서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 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처음 이런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짐승처럼 만드셨거나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

기를 바라노라 하셨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건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베푸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더라구요. 예수님 오셨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 몰았죠. 표적과 이적을 베풀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결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둥시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안 만드셨더라면 뽕밭을 건데 뭐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도 고생을 하시느냐? 그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 선악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만들어 놔더니 이 자식들이 하는 말이 ‘뽕히 그것 만들어 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짧게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이 낳아서 기르면 참 힘들잖아요? 힘들게 그러지 말고 강아지나 한 마리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실래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아이 키우실래요? 선악과를 만드시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강아지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아시면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만든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이유를 잘 모르거든 다른 것은 다 잊어 버리셔도 제가 앞에 던진 이 질문은 잊지 마세요.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잘못 키우면 원수가 된다 하던데 그러느니 강아지나 키우지 뭐, 이런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쁜 강아지 마다 하시고 참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는 것 뽕히 아시면서도 수 많은 자기 자식을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힘들어 하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인간이지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녀로 삼았으니까요.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원래대로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가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생기면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 하나님께서 최종 방법,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이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이사야 앞부분에 참 잘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 하겠다고 야단을 야단을 치시지만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야기 좀 해보자”는 말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혹독한 책망을 하시다가도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요. 오래 전 코미디 프로 중에 “대화가 필요해” 있었죠? 옛날 겁니다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대요. 하나님께서 “얘기 좀 해보자. 여기와 봐라, 앉아서 얘기라도 좀 해보자.”

지금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겁니다. 말이라도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누굴 닮았나요? “날 닮았다” 이런 분은 아들이나 딸이 엄청 속을 썩인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한 마디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참 회한하게도 악착같이 버텨요.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왕이 조금만 가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정을 해도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잘못 했다고 한 마디만 하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끝내 말을 안 들으면 20절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 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끝장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번에 말 안 들으면 부자 관계를 끊겠다.”

부자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쉽나요? 말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게 쉽나요? 하나님께서도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그 벌을 다 감당케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를 믿는 자 만이라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했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백성으로 삼아서 말 잘 들으라고 온갖 은혜 다 베풀었는데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저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독생자가 죽겠다고 자청해 나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자녀가 끝내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물려 설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느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이 이사야서를 읽어 가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탄절 때까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강림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 4주간입니다. 이 4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마음을 잘 되새겨 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